

# 욕망의 회로에 갇혀버린 기표의 운동과 권력효과

라캉의 정신분석학으로 읽은 추리소설

박기수 | 문학평론가 · 한양대 국문과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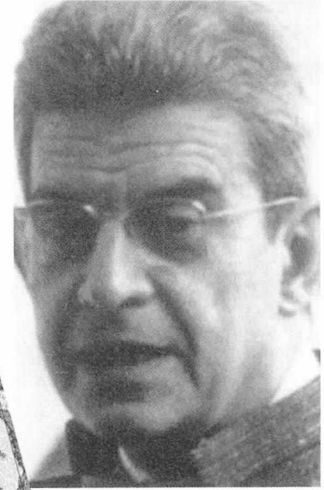
라캉은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김진경, 문학과지성사)를 정신분석학과 기표의 구성적 기능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는다. 라캉은 여기서 편지가 의미(의의)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효과를 생산하는 것(기표)으로 기능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편지가 이동할 때마다 각기 다른 의미나 권력관계를 매개함으로써, 주체들의 과제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즉 주체들은 편지의 위치에 따라서 그 존재 의미가 달라지며, 각 주체는 기표의 효과에 따라서 변형되는 것이다.

**반복과 상호주체적 담론 구조 주목해** 왕비는 왕이 알면 안되는 편지를 읽다가 왕이 들어오자 편지를 탁자 위에 그냥 드러내놓는 방식으로 숨긴다. 그것을 눈치 챈 장관 D는 여왕의 편지와 흡사한 편지를 꺼내놓고 편지를 가져간다. 왕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편지를 훔쳐가는 것을 보고도 왕비는 속수무책이었다.

때문에 왕비는 장관이 편지를 훔쳐갔음을 알고, 장관도 왕비가 자신이 훔쳐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왕비는 파리 경시청 경감에게 편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경감은 장관이 없는 사이 그의 집안을 샅샅이 수색하지만, 편지는 찾아내지 못한다. 경감은 뒤팽에게 외뢰하고, 뒤팽은 장관이 왕비가 한 것처럼 편지를 드러내놓았음을 알고 장관이 훔쳤던 방식으로 그 편지를 훔친다.

중요한 편지를 모두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놓아둠으로써 이 편지가 왕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경감에게는 보이지 않으며, 왕비가 그랬던 것처럼 장관도 그 편지를 드러내놓음으로써 숨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뒤팽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팽은 편지를 훔치면서 자신이 훔쳐갔음을 장관이 알 수 있도록 아트레와 티에스테의 이야기를 적어둔다. 훔쳐온 편지를 뒤팽은 경감에게 5만 프랑을 받고 넘겨준다.

이 작품이 흥미로운 것은 1) 편지를 누가 썼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2) 왕, 왕비, 장관의 역할이 경감, 장관, 뒤팽으로 반복되고 그 구조를 통해 상호주체적 콤플렉스(inter-subjective complex)를 드러내며, 이것이 3) 정신분석과 정과 기표의 구성적 기능에 대한 알레고리라는 점이다.



라캉

문제가 되는 편지는 발신인이나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것이 공개될 경우 왕비를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지는 그 자체로 권력이 된다. 그래서 장관은 편지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왕비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래서 라캉은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권력(상상계, 은유)이 되지만 드러나면 허구가 되는(상징계, 환유) 편지를 하나의 기표로 봤다. 그리고 기표는 주체의 자리를 바꾸고 그 결과 반복이 일어난다.

**기표의 우월성에 대한 알레고리로 독해해** 이 작품을 기표의 우월성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은 라캉은 작품 안에서 편지의 소유자가 바뀔 때 따라 달라지는 편지의 효과를 추적한다. 편지는 기표처럼 의미화 사슬을 형성하고, 누구에게 편지가 있느냐에 따라 주체의 상호 자리바꿈이 일어나며, 그에 따라 세 명의 주체인 편지를 읽어버린 자(A), 편지를 훔친 자(B), 그리고 제삼자(C)가 등장한다.

C는 왕과 장관으로 이들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다. B는 왕비와 장관으로 이들은 제삼자(C)가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본다. C는 장관과 뒤팽으로 숨겨야 할 것이 찾는 사람에게 드러나 있음을 본다. C는 진리(편지)가 숨겨져 있으리라 믿기에 상상계에 머물고 있으며, B는 편지가 드러나 있음을 알지만 자신도 보이고 있음을 모르기에 상징계에서 상상계로 추락하며, A는 상징계에 머물지만 편지가 다시 C에게 넘겨지기 때문에 A도 영원히 상상계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기표(편지)는 그것을 얻는 순간 잃어버리는 욕망의 회로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라캉은 이 작품을 기표(편지)의 운동에 주목해, 그것이 만들어내는 반복의 구조와 상호주체적 담론의 과정에 주목한 것이다. 이것은 정신분석이나 글 읽기의 알레고리인데, 그것은 문학적 서사나 정신분석학적 서사가 모두 반복의 구조에 의존해 경험을 소급·이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박기수씨는 한양대 국문과 및 동대학원 졸업하고 <애니메이션 서사의 특성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문학과 창작>에 <경쾌한, 경박한, 아니 가벼운>을 발표하면서 데뷔했고 현재 한겨레 문학센터, 한양대 국문과 강사다.